

한국근현대 고승들의 **신문담**

용성 스님(2)

용성 스님, 전강아! 전강 스님, 예!

용성 스님, 그것이 '제일구' 나라

어느 날 용성(龍城, 1864~1940) 선사(禪師)가 전강 스님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제일구(第一句)냐?" 전강 스님이 답했다. "예!" "틀렸다." 이에 전강 스님이 손뼉을 치고 웃어 보였더니, 용성 선사가 다시 말했다. "틀렸다."

"제가 틀렸습니다. 어떤 것이 제일구입니까?" 이때 용성 선사가 느닷없이 "전강아!" 하고 불렀다.

"예!" "그것이 제일구나라." 용성 스님이 후학을 일깨우는 수단은 능수능란한 달인의 경지이다. 두 번이나 대답이 틀렸다고 분심(憤心)을 일으킨 후 약

'제1구(第一句)'는 진리의 당체 지칭

분심 일으킨 후 '선교방편' 베풀어

후학 일깨우는 수단 '달인'의 경지

에 등장하는 운문 선사의 법문에 더욱 확실하게 드러나 있다. "항림징원(香林澄遠)이 18년 동안 운문 스님의 시자를 했는데, 그를 가르침에 다만 '원 시자(遠侍子)'라고 부르면, 원 시자는 '네!' 하고 대답하고, 운문은 '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다. 운문은 '내가 지금 이후로 다시는 너를 부르지 않으리라'고 하였다."

앞에서 용성 스님의 질문에 전강 스님은 똑같이 "예!" 라고 대답했지만, 용성 스님은 한번은 "틀렸다"고 했고, 한번은 "맞다"고 했다. 같은 말이지만, 이렇게 맞고 틀린 차이가 벌어진 것은 과연 왜일까?

용성 스님은 "이렇고?" 화두의 열쇠인 이 물건 아닌 '한 물건(一이 바짝 달아올랐을 때, 확인의 근거에 맞게 선교방편(善巧方便)을 베풀는 것이다. 이런 단편을 받은 전강(田岡, 1898~1975) 스님 역시 당대의 선지식으로 이름을 떨친 것은 물론이다.

제자의 이름을 부른 후, '예!' 하고 대답할 때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공안을 제시하는 이러한 문답은 '이렇고?' 화두가 정형화되기 이전, 백장 선사의 문답에서도 나타날 만큼 확인의 본래면목을 일깨우는 효과적인 방편이라 볼 수 있다. <백장록>에는 이런 공안이 나온다.

"하루는 백장 스님이 설법을 마치고 대중이 법당에서 물러가지, 스님이 대중을 불렀다. 대중이 고개를 돌리자, 백장 스님은 '이것이 무엇인가(是甚麼)' 하고 물었다."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이전의 본래면목'을 묻는 '이렇고?' 화두는 다양한 공안집에 등장하지만, <백장록>

에 대해 "찾으면 더 멀리 도망하고 그냥 두면 여러분 앞에 있어 항상 손바닥 안에 머문다"고 말한 바 있다.

진리의 당체(當體)를 직접 지칭하는 말인 '제 1구'는 딱히 정해진 바가 없는 '무유정법(無有定法)'인 동시에, 구하려고 하면 얻을 수 없는 '무소득법(無所得法)'이다. 하지만

찾지 않고, 갈망하지 않고, 원하는 바가 없으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바라제 존자는 "성품(性品)은 작용하는 데 있다"며 "눈에 있으면 보고, 귀에 있으면 듣고, 코에 있으면 냄새를 맡으며, 혀에 있으면 말을 한다"고 풀이한 적이 있다.

그러나 '아무개야!' 하고 부를 때, "예!" 하고 대답하는 이 작용에서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화두 공부는 '모르는 게 약' 일 때가 훨씬 많다.

김성우 객원기자

'가야산 호랑이'가 포효하던 명찰담개 해인사 백련암은 진한 수행의 향기를 발산하고 있었다. 산사를 둘러싼 부처 님은 바위들과 절 마당 안에 우뚝 솟은 네모 바위가 성철(1911~1993) 스님의 꽃뚱한 기상을 상징하는 듯 했다. 주말 입에도, 성철 스님의 등신상(等身像)을 모신 고심원(古心院)을 비롯해 적광전, 천대전 등에는 절삼매, 주력삼매에 빠진 불자들이 '절하다'가 죽었다'는 비장한 표정으로 정진 또 정진에 매진하고 있었다. 행여나 방해가 될까 봐 물레물레 카메라 셔터를 누르면서, 기도일념에 든 수행자들의 속마음이 금급했다. 끝없는 참회의 절과 업장소멸을 위한 주력수행으로 저들은 육신의 고통마저 잊고 깨달음의 외길로 나아가고 있으리라.

출· 재가를 막론하고 구도의 여정에서 한번이라도 좌절을 겪지 않은 수행자가 어디 있겠는가. 그럴 때마다 불자들은 간절히 기도도 초발심과 신심을 다지고, 수행의 장애물을 돌파해 나가는 것이다. 질기고도 질긴 습기(習氣)의 발동으로 좌절을 겪는 수행자들은 반드시 이러한 기도를 통해 원점에서 수행을 재점검하고 새롭게 발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절과 주력이 참선이다

"음 아비라 홀 감 스바라!" 성철 스님은 백련암을 찾은 사람들에게 대뜸 '비로자나 법신진언'을 정제(무릎 꿇은 채 바로심) 합장하고 외우는 참회기도(아비라)를 시키곤 했다. 스님이 열반한 지 14년이 지났지만 백련암을 비롯한 성철스님문도회 사찰에서는 아비라기도 소리가 아직도 끊이지 않는다. 성철 스님은 불자들에게 '예 불 대참회', 즉 108배 절하는 것과 '대불정 능엄신주' 독송 그리고 화두참구를 하루 일과로서 빠뜨리지 않아야 하며, 1년에 4 회 절에 와서 아비라기도를 빠지지 않고



백련암 적광전에서 절 삼매에 빠진 불자들.

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아비라기도는 중국 당나라 때 총림의 수행법으로 전해 오던 것을 성철 스님이 참선남자들에게 권하면서 불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졌다. 스님은 한국전쟁이 지난 후(1952년경) 고통과 불행에 빠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는 모든 고통과 악업은 과거생으로부터 우리 스스로가 지어온 업장의 과보"라며, 업장을 참회하고 자기 자신을 바로 보도록 '예 불 대참회'와 새로 올 여한 능엄주를 외우게 하고, 아울러 아비

라기도를 하도록 일러주었던 것이다.

이후로 참선은 물론 가지가지의 방편을 닦는 수행자들은 공부가 안 되면 전생의 업장이 많다고 생각되어 그 업장을 없애려고 '예 불 대참회문'으로 참회하는 절을 하면서, 능엄주 주력이나 아비라 기도를 하는 것이 일반화 되었다.

성철 스님이 "전생과 금생의 업장이 소멸되어야 지혜의 눈이 열려 수행이 제대로 된다"고 하였듯이, 수행의 입문자나 향상일로(向上一路)를 도모하는 구참자는 이러한 자

력(自力)과 타력(他力)이 둘이 아닌 기도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뒤쳐져 있는 바가 있다는 생각을 모조리 내려놓고 원점에서 출발한다는 각오만 있다면, 참회하는 절과 주력이 참선이 되고, 참선이 절과 주력이 되는 도리를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도는 수행의 기쁨

참선 용맹정전에 앞서 21일, 100일 기도를 결제하는 스님들이 적지 않은 것은 기도가 참회를 통해 업장을 녹이고 신심을 북돋울 수 있는 수행의 기쁨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본격적인 수행에 앞서 천수대비주 기도나 관음기도, 문수기도 등으로 득력(得力)해 참선 수행의 길로 나아가고 승들이 적지 않다. 또 이미 기도도 득력한 스님들은 단기간에 견성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조선 선조 때의 선학자(禪學者) 스님은 묘향산 문수암에서 100일간의 관음기도를 회향하는 날, 포수가 쓴 총소리를 듣고 확실히 대오했다고 한다. 경허 스님의 수제자인 수월 스님은 글을 몰랐지만 오직 천수대비주 기도를 통해 무명(無明)을 깨뜨리고 깨달음을 얻었으며, 어떤 경전을 들어도 뜻을 꿰뚫어 봤다고 전한다.

●일념삼매에 들면 깨달음의 문 열려

이처럼 기도가 삼매를 이룬 오랜 시간 지속되면 곧바로 깨달음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기도를 하면서 힘이 드는 줄도, 시간이 는 줄도 모르게 고비를 넘기고 나면 묘한 힘을 얻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주관과 객관이 하나 된 상태에서 모든 상대적인 경계와 사비·분별, 생사마저도 초월하는 무심삼매에 빠져들면 마침내 오도(悟道)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일타 스님은 생전에 "기도가 몸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일념삼매에 젖어들게 되면, 깨달음의 문이 저절로 열리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스님은 <기도>라는 책에서 "의심도 나지 않는 화두를 들고 마구잡이로 씨름하기 보다는, 스스로 마음을 정해 업장을 녹이고 신심을 북돋울 수 있는 기도를 한바탕 열심히 하는 것이 정개의 승리의 법구로 득력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복숨을 걸고 간절히 기도하는 수행자에게는 반드시 모든 방편을 초월해 깨달음이 함께 하지 않을 수 없다. 끝없는 번뇌·망상으로 인해 미오(迷悟)를 반복하며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수행자들은 당장 절과 주력, 염불 속으로 들어가 기도일념에 빠져 보자.

김성우 객원기자 buddhapie6@hanmail.net

아빠따 코스
나를 찾아 마시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밤은길 아빠따 센터
아빠따 마스터 김희균
전화주시는 본래는 언제라도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용문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021396-2736
http://www.asafarcenter.co.kr
E-mail: heegyun@naver21.com

●핵심 본 화엄경 강의를 총재는 5월 17일(매월 음력 초하루) 오전 11시 해국 스님(전국선원장회의 의장)의 선(禪)으로 본 화엄경 강의를 갖는다. (051)802-0130

●간혹선 특별법회 부산 미타선원은 6월 16일까지 매주 토요일 2시 오전 스님(호산선원 선원장)을 초청, 간혹선 수행법 특별법회를 연다. 몸의 세계와 원리(5월 19일, 26일, 다음)의 힘을 활용하는 법(6월 2일), 마음을 찾아 쓰는 법(6월 9일), 간혹선의 여섯 가지 수행과 정(6월 16일) 등으로 진행 (051)253-8687

●위빠사나 집중수행-경주 마하보디선원은 5월 19일 오후 6시부터~26일 오후 2시까지 위빠사나 집중수행을 실시한다. 초심자 수련반에는 매일 둘째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일일 오후 2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054) 746-9750

●청화 스님 법문공부-금강강화회는 매월 둘째 화요일 오후 7~10시 서울 우리는선우 법당에서 (원통불공과) 오체를 교재로 청화 스님의 법문과 열반선을 공부한다. (011)9069-1490

인도산 자수정 108 염주
평생 행운과 소원을 성취시키는 불멸의 염주
승리와 행운의 염주

특별중점품 손목단주
고급케이스에 있어 선물로도 품격!!

영원히 살아 숨쉬는 불멸의 염주
영원히 살아 숨쉬는 인도산 천연자수정 108염주가 시판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자수정은 몸에 지니고 있으면 화를 쫓고 행운과 소망하는것이 이루어지고 사업이 망하지 않는다는 전설이 있어 모자를 쓴 고

대 인도 상인과 아라비아 상인들이 이마에는 자수정을 꼭 부착하고 다니는 것을 영화에서 자주본다. 인도산 자수정의 특징은 어떠한 세공을 해도 오염되지 않는 정화수를 주기적으로 주면 자란다는 보석으로 인도인들은 영원불멸의 보석이라고 하여 부처님 보석이라고도 한다. 인도산 천연자수정 108주 염주는 인도에서 가공해 국내에서 조립한것으로 색상도 일정해 품위가 있다. 불멸의 보석으로 일컫는 자수정 염주는 지니고 있는 것 만으로도 어떠한 역경이 와도 승리하고 성공한다는 묘한 뜻이 있어 출시되자 선물로도 인기며 평생 사용할 예불법구로 불자는 물론 스님들까지도 신중하고 있다. 신광사에서는 불사기금 조성으로 구입 고객님의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소원성취와 사업번창을 위한 100일 특별축원불공을 올려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95,000원 전화: (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자동차 사고 예방과 닥쳐올 화를 쫓는 영험!!
자동차를 타고 가다보면 운전석 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 법구경에는 중생들이 사는 동안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비방의 법구들이 많이 있다. 그중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꼭 맞는 법구가 삼고금강저이다. 자동차는 항상 사고의 위험을 지니고 달리므로 운행중에 닥쳐올 화를 미리 쫓고 금강의 지혜로 안전운행하며,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와도 승리하는 뜻을 지닌 삼고금강저를 자동차에 걸고 다니시면 된다. 가격 38,000원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아 달수 있다. 전화: (02)741-4477

2007년 삼재 소띠, 뱀띠, 닭띠, 삼재화막는 삼고금강저!

닥쳐올 화를 미리쫓는 삼고금강저
삼재란 음양오행에 의해 세상은 동안 일정한 기간에 역란과 환란이 오는 시기를 말한다. 삼재에는 드는삼재, 목는삼재, 나는삼재 각 1년씩 3년동안 수, 화, 풍으로 큰화를 당할수 있다는 뜻으로 불가에서는 삼재를 소멸하는 의식으로 매년 입춘날 대부분 사찰에서 삼재소멸 축원불공을 드린다. 삼재에는 나이에 따라 일반삼재와 있고 악삼재가 있다. 삼재가 든 사람들 중에는 하는일 마다 일이 안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며, 재물손실이 계속되고 뜻하지 않는 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는 등 어려운 고통이 오지만 삼재라 하여 삼재가 든 모든 사람이 인종은 일반 생기는 것은 아니다.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에 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 중에도 크게 성공하는 사람도 많다. 삼재를 완벽하게 소멸하는 방법은 없지만 닥쳐올 화를 어느정도 막아 환란을 모면하게 하는 비방으로 불가에서는 삼고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삼고금강저는 인도산(神)의 밀교의식에 쓰이는 불퇴전의 승리의 법구로 닥쳐올 화를 미리 막아주며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고 승리한다는 부처님의 위신력의 법구다. 가로 5cm 폭 2cm로 가장 또는 지갑속에 넣고 다니면 된다. 삼재소멸 축원불공을 마친 삼고금강저는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35,000원 전화: (02)741-4477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화제의 지갑
600년만에 온 황금돼지 해 선물은 지갑! 정해진 새지갑으로 사업성공! 평생부자!

옴마니반메훔 福지갑
동서남북의 재물을 불러 모으는 영험의 지갑

역경학적으로 일반돼지해는 12년마다 오지만 정해진 돼지해는 60년마다 온다. 정(丁)은 타고르는 불을 뜻해 붉은 돼지 해라고도 하고 음양의 조화로 붉은돼지 10마리가 모이는 2007년 정해년을 황금 돼지해라 한다. **황금돼지해에 결혼을 하면 평생 풍요롭게 살고 자녀를 낳으면 자녀도 평생부자로 살고, 돈의 집인 지갑을 새로이 바꾸면 들고도는 돈이 새지갑으로 온다는 좋은해다.** 동서남북의 재물을 모으고 어려운일들이 신통묘통하게 풀린다는 신묘장구 다라니경에 나오는 육자대령 왕진언 옴마니반메훔 복지갑이 황금돼지해를 맞아 선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집안불공과 축원 불공까지 마친 옴마니반메훔 복지갑은 사용해보면 이들의 인소문을 통해 구입할 정도로 신통묘통한 신비한 영험이 나타나는 것으로 소문이 나있다.** 구입한지 보름만에 절망속에 있던 사업이 귀인을 만나고, 안되던 장사가 호황을 누리고, 팔리지 않아 고민하던 점포가 쉽게 팔리고, 부당산으로 큰 돈을 받고, 포기한 돈이 갑자기 들어오는 등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 지갑앞면에는 동서남북의 돈과 복을 부르는 육자대령 왕진언을 넣고 지갑내부에는 들어온 돈과 가진 돈이 헛되이 나가지 않게하는 팔길상보병과만사행통의 비방인 반장을 손금도금하여 부착했으며 천연고소가죽에 金·銀나노 처리까지한 지갑으로 일반지갑과는 비교 될수 없게 제작되어 있다. 600년만에 찾아온 황금돼지해에는 음양의 조화로 남성은 황금브론조색지갑, 여성은 적색지갑에 황금색 라인이 있는 지갑을 사용하면 황금돼지해에 모든 소원이 성취된다. 불광사에서는 옴마니반메훔지갑을 사용하실분의 생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올려 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여성용장지갑 95,000원 남성용장지갑 65,000원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